

공기청정기 오염측정불량 불만

17개 제품 오염물질 측정농도 신뢰성 조사 결과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측정 정확도 현저히 떨어져

시판중인 공기청정기 대부분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올 여름 유해물질인 옥타이리소시아폴론(OIT) 검출 논란으로 판매가 주춤했다가 환기가 힘든 겨울철을 맞아 공기청정기 판매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안전성 우려가 불거지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측정치가 표시되는 공기청정기 17개 제품의 오염물질 측정 정확도를 조사한 결과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미세먼지(PM10)·총휘발성유기화합물(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TVOC)의 측정 정확도가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블루스카이'와 LG전자 '퓨리케어' 라인, 코웨이, 사오미, SKT, 케이웨더 등의 제품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수치를 표시하고 있는 공기청정기의 공정시험기준인 중량법과 비교한 챔버시험 오차율은

무려 51~90%에 이르렀다. 사실상 기기에 표시된 오염도를 그대로 믿기 힘들다는 이야기로, 그동안 눈으로 오염 수치를 볼 수 있다며 '클린'을 팔아온 대기업들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올 여름 OIT 필터로 타격을 입었던 공기청정기 판매는 최근 환기가 힘든 겨울철이 되면서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15일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1일까지 공기청정기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보다 판매 증가폭이 더욱 확대됐다.

이번 발표를 접한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공기청정기를 구매하는 소비자 중에는 어린이 등 노약자의 건강을 생각해 구매하는 사람이 많다.

전자업계는 오염 측정이 제대로 되는 제품이 하나도 없다는 이번 발표의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조기단종 사태로 잘나갔던 모바일 부문에 제동



코리아 크리스마스 페어

전주시는 16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코리아 크리스마스 페어 2016'에 참가해 전주 관광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유일의 크리스마스 특화 전문 전시행사로, 시는 전주홍보관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직접 전주의 주요 관광자원을 그려보는 '나만의 전주여행 머그컵 만들기' 체험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이 걸린 상태다. LG전자 역시 올해 야심작 V20 출시에도 모바일 부분의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다.

여기에 백색가전 시장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마다 쑥쑥 파이가 커지고 있는 청정기 시장은 꼭 잡아야 할 시장으로

떠오른 상태다. 일각에서는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는 점에서 예상보다 이번 '측정불량 후폭풍'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 개방 공공데이터 활용 앱 개발

앱 11개 신규 개발... 시민 편의 향상 기대

전주시가 개방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 개발되면서 전주시민들과 관광객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 '2016년 시민과 통(通)하는 스마트 앱 공모전'을 통해 총 11개 앱이 신규 개발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투명한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3.0'의 정보개방, 공유, 소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전주시가 개방

한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심사 결과, 임여스 팀(박다빈 외2)이 개발한 '편안한 전주' 앱이 최우수상으로 결정됐다. 이 앱은 지도를 기반으로 사용자 인근의 병원·약국 정보와 위치, 가까운 공중화장실·주차장 위치, CCTV설치현황정보 및 자율방범대 위치 등을 제공해 전주가 생소한 여행객들에게 편의시설 및 안전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개발됐다. /김영재 기자

또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전주의 여행정보를 제공하는 '전주투어'가 우수상을, '범죄 없는 전주' 앱과 '전주시 대피소' 앱이 각각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의 최우수상팀에는 전주 시장 표창과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우수상과 장려상에는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엔 선정된 작품들은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해당 작품명으로 검색해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김영재 기자

수주 업체 일괄 하도급 강요 부안군 공무원에 집유

전북 부안군 조포만 해안체육 탐방도로 개설 공사 관련을 수주 받은 원청업체에게 특정업체로 일괄하도급 하도급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부안군청 비서실장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승지원 형사1단독 송선

양 판사는 15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비서실장 김모씨(55)에게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사건과 관련된 건설업체 대표 채모씨(50)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군청 건설교통과장 박

모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70만원·추징금 32만원을 선고하고 건설교통과 직원 이모씨(48)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뇌물을 받은 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 김모씨(56)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벌금 4500만원·추징금 2128만원을 선고했다. /김민근 기자

장태영 시의원, 항소심서도 '집유'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장태영(52) 전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의원직 상실형이 유지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4일 장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사실 부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913만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경우 정치자금법 상 다른 범죄가 함께 재판을 받더라도 형을 따로 선고해야 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내렸다.

재판부는 추징금이 크게 줄은 이유에 대해 "피고가 수수한 정치자금 중 사무실 임대료 보증금 1500만원과 그에 대한 18개월 간의 법정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법

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는 부분이다" 이유를 밝혔다.

이어 "폭행 피의자와 원만한 합의한점과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이 반환된 점은 인정되나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기부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시의원으로서 법률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인을 상해하고 물건을 손괴했으며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허위 신고로 피해자를 무고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 의원은 2013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자신의 시의원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4700여만원을 지인에게 대납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장 의원은 2014년 6월 15일 오후 10시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소재의 한 식당 앞에서 지인 A씨의 신용카드를 가위로 자르고 위협하며, 가위손잡이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민근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6명 부상입힌 공무원 '벌금형'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6명을 다치게 한 공무원 김모씨(52)의 항소심서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1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16일 저녁 7시경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중인 승용차를 추돌하며 연쇄사고를 발생시키고 6명의 부

상자를 냈다. 조사결과 김씨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246%로 면허 취소 수치였던걸로 밝혀졌다.

A씨는 사고 후 피해자 모두와 합의했지만 검찰은 벌금형으로 고친 원심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산단 조성 관련 공무원 뇌물 요구 의혹 압수수색

고창군청이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 A씨가 사업을 수주받은 업체에 거액의 뇌물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고창군청 민생경제과 사무실과 공사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담겨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580여억원의 규모로 진행된 사업으로, 공무원 A씨가 뒷돈을 요구한 업

체는 220억원 상당의 수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업 초기부터 공무원이 수주받은 업체 대표들에게 공사편의를 이유로 수 십억원을 요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진행되는 자치단체의 거액의 사업들이 공무원들의 뱃속만 채우는 안하느니만 못한 사업들로 변질되게는 아닌지 지역주민의 걱정은 높아져만 가고 있다. /김민근 기자

전라북도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2-30 (9일간)

구독 · 광고문의 288-9700